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음 9월 25일) 제23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김영태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주)와 1213억원 규모의 추가 증설 투자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 최고기업 전북에 등지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도·정읍시와 투자협약 체결 연 1만톤 생산 규모 동박 공장 증설 66여명 일자리 창출

전지용 동박 및 디스플레이용 연성 동막적층필름(FCL)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전북 정읍에 대규모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22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김영태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주)와 1213억원 규모의 추가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는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전북도와 정읍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가 이번 대규모 증설투자에 나선 것은 최근 전기차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리튬이온 전지의 고용량화 및 신뢰성 향상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13만7,9㎡(3만9346평) 부지에 약 1213억원을 투자해 연 1만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전지용(EV, ESS 등) 동박 및 디스플레이용 연성 동막적층필름(FCL) 제조사업장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전지용 동박은 친환경차의 핵심 부

품인 배터리의 고용량화와 경량화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최근 정부에서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전략 발표 및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정도로 해당 산업에 대한 폭넓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다.

증설 사업장은 약 6850평 정도로 2019년 11월 중 착공해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공장이 준공되면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의 전지용 동박의 연 생산 캐파는 총 4만톤으로 기존 3만톤 대비 약 33%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전지용 동박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 66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이차 전지에 본격 사용되고 있는 6

마이크로미터(μm) 두께의 전지용 동박을 2013년에 이미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세계 최초로 5마이크로미터(μm) 두께의 전지용 동박을, 올해 10월에는 4마이크로미터(μm) 초극박 제품 양산해 명실상부 전지용 동박의 극박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가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전북도와 정읍시가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근 전기차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리튬이온 전지의 고용량화 및 신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화질,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Global No.1'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도,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 운영 등

전북도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과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 산불진화 합동 시범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각 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약 71%가 주로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10월 24일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취약지 8만 9000ha와 등산로 82개 노선 442km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는 '2019년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이 민·관·군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제시 모악산 캠핑장 일원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이날의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도내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투입해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71대를 가동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임실,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산불조심 기간중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적발 시 최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방화죄(5년 이상 징역)·실화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등이 적용되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성장사다리 IR 라운지 우수기업 선발

전북도, 유니캡프·서우엠에스 등 9곳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2019년 전라북도 성장사다리IR 라운지' 우수기업이 22일 선발됐다.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IR 라운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사업성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벤처캐피탈(VC)과 엔젤투자자를 통한 투자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IR라운지는 업력에 관계없이 2019년 도약기업 지정기업(15개사)과 직전년도(2018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19년 도 상반기 매출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그 결과 (주)유니캡프, 서우엠에스

(주), (주)디딤돌, (주)휴먼드림, 주식회사 엔시팅, (주)서로바이오, (주)우성이앤에스, (주)건강다모아, (주)하이엠시 등 9개사가 투자유치와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 및 집중멘토링을 통해 IR자료 작성 등을 지원받았다.

이번 IR라운지에는 '미래ESV투자조합' 운용사인 전북기술지주회사,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벤처펀드' 운용사인 SI투자파트너스 등의 투자전문 심사위원의 평가와 전북도 성장사다리 클라우드 펀딩대회의 결과를 포함해 선발된 우수기업에 대해 공동홍보 캠페인 영상의 제작 및 송출을 통해 기업홍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국 최초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

3면 - 전북도 규제혁신 제도적 기반 마련

5면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6면 - 합천배 남원시장 취임 100일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